

# 코로나 이후 광주·전남 고용 회복 '디커플링'

## 한은 지역본부 고용시장 복원력 평가

광주, 회복률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 개선세 특정부문 집중 불안  
“제조업 복구·신성장산업 육성을”

코로나19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고용 시장은 나아졌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고용회복이 더뎠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 고용시장 복원력 평가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회복 양상은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탈동조화(decoupling)하는 양상이다. 전남의 고용상황은 코로나 이후 전국 평균과 유사한 움직임이지만 개선세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등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광주는 청년층(15-29세)과 제조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지체되면서 타 지역 대비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났다.

전남의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최대 3.6% 감소한 뒤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숙박음식 등 취약

업종과 농림어업 부문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4.4%)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2022년 4월 중 광주 월평균 취업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8년 1월~2020년 1월, 75만 명)의 99.4% 수준에 그쳤다.

전남은 코로나 이전 96만8,000명에서 98만 3,000명으로 101.5%를 기록했다.

타 지자체의 코로나 이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전국 평균은 100.8%, 특·광역시 및 도지역 평균은 각각 101.7%와 99.6%였다.

광주의 고용상황은 전국 및 특·광역시 평균을 밑도는 것이고 전남도 광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올해 1분기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만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청년층 고용상황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일자리 공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혼인·육아로 인한 여성 재취업 실패, 청년 인구 순유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5-29세의 경우 청년층 내 인구 비중이 늘었음에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폭(-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역 내 청년 인구 순유출은 광주가 4,037명, 전남은 8,302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 내 고용시장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늘고 업종별로 개선 흐름이 차별화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고용 상황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제조업 생산자수도 2018년 이후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주력 제조업을 통한 고용 개선도 부족했으며,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조업체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진행한 경제조사팀 김대운 과장은 “광주 고용시장은 청년층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전남도 고용시장이 질적 측면에선 좋지 않다”며 “향후 광주·전남 고용시장의 복원을 위해서는 주력인 제조업 복구와 함께 미래 신성장전략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덧붙여 “전 연령층의 일자리 매칭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연수 기자

# 수도권 청년구직자 72% “지방근무 하기 싫어요”

대한상의, 청년인식 조사  
연봉·근무지·워라벨 순 고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 가량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7~20일 수도권에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9.2%가 ‘다소 그렇다’, 23.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별로 상관없다’거나 ‘전혀 상관없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2.6%와 4.6%에 그쳤다.

실제 비수도권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지를 묻자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4.5%에 달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회사라도 지방에 있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공기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은 19.6%,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족·친구 등 네트워크 없어서’(60.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문화 인프라가 열악해서’(59.8%), ‘주거·생활비가 부담돼서’(48.9%),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14.2%), ‘성장 기회가 부족해서’(6.8%), ‘결혼·자녀교육이 어려워서’(5.0%) 등 순이었다.

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묻자 수도권 청년들은 연봉(36.5%)과 근무지역(28.9%)을 각각 1위와 2위로 꼽았다. 이어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21.3%), ‘개인 커리어 개발’(9.3%), ‘회사의 성장 가능성’(2.7%) 순이었다.

비슷한 수준의 두 회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위치할 경우 어디로 입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수도권 회사’라고 답했다. 수도권 회사를 택한 응답자에게 ‘연봉이 얼마나 높으면 지방 근무를 선택하겠느냐’고 묻자 ‘1,0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2,0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18.6%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먼 지역에서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수원과 용인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4.1%에 달했다.

/연합뉴스



“마작 자리로 열대야 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일 본관 8층 ‘크리에이티브 매주’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마작 자리’를 선보이고 있다. 마작 자리는 무더운 여름에도 끈적임이 적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몸의 체온을 내려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해양에너지, 전남 1,175세대 도시가스 공급

119억 투입 배관 28km 설치

해양에너지(대표이사 김형순)는 전남지역 내 미공급 소외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올해 약 119억원을 투자해 총 1,175세대

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전남도 및 각 지자체 보조금과 해양에너지의 투자비를 들여 공급배관 약 28km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에너지는 매년 미공급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비와 공급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화순군, 나주시,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일원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각 지자체와의 협약을 마친 상태이다. 담양군과 함평군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김혜린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이제 “여보야” 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가장 스마트한 결혼방법 “여보야” 는 고비용의 천편일률적인 결혼정보 서비스가 아닌, 농어촌 등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신개념 결혼중개 서비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와 최신 시로 나의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여보야 시로 쉽고 빠르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